

도시경쟁력 높은 지자체 '인정'

전주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서 장려상 문화·복지·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서 큰 성과

전주시가 3년 연속 도시경쟁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30일 경주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8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9위에 머물렀던 생산성평가에서 지난 2015년 20위로 백계단 이상 올랐고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

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지자체 생산성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인적 역량과 건전재정 역량 등 각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평가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6곳이 응모했다. 생산성지수 평가는 사회적가치와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2개 영역에 △

지역경제 △정주여건 △재정역량 △인적역량 4개 분야 16개 지표를 활용해 응모 지자체에 대해 종합 생산성 점수가 산출됐다.

그 결과, 시는 지역경제 분야의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정주여건 분야의 △문화기반시설 이용 △평생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아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이 지역기반시설을 이용해 여가를 향유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시는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인증·예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

합, 마을기업의 비율을 측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정도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으며, 지역주민수 대비 문화기반시설 연간 이용인원 총계 항목에서도 S등급을 획득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앞으로도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전주가 간직한 다양한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생태자원을 보존·발전시켜 전주를 사람들이 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국 지자체연구소협의회 하반기 워크숍

'전국 지자체연구소협의회 2018년 하반기 워크숍'이 30일과 31일 이틀간 전주시 장동에 위치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김영원 부시장)에서 열렸다.

전국 지자체연구소협의회(회장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가 주최하고 전주시·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워크숍은 전국 18개 지자체 연구소의 교류협력 증진과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을 비롯해 강원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등 전국 18개 지자체연구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틀 지자체연구소들은 지역균형발

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지자체 연구소 육성 사업을 통해 설립됐으며, 18개의 지자체 연구소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 첫날 김승수 전주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를 주제로 한 특강 △전국지자체연구소 연구 성과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워크숍 이틀째인 31일에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본고장이자 국악의 고장,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주한옥마을 일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 팔복예술공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송호철 기자



“벼 수확 체험해요” 30일 농촌진흥청 청사 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벼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벼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완산구는 동절기 폭설 또는 도로 결빙 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도로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염수살수차 및 살포기 등 65대의 제설장비와 3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염화칼슘 513톤, 소금 500톤 등 제설자재를 확보해 제설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한, 모래주머니 3만 여개를 확보해 주요간선도로, 경사로 및 교량 등 30개 구간 제설할 90개소, 모래주머니 534개소에 배치해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할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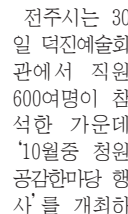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48필지(완산구 661, 덕진구 887)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결정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관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송호철 기자

‘먹고사는 문제? 해법은 경제민주화’

전주시, 청원공감하마당서 박용진 의원 초청 특강 김윤덕 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의 잼버리 설명회도



전주시는 30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중 청원공감하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원공감하마당 행사에는 국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사진)이 강사로 초청돼 '재벌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해 강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민속으로 강연 100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특강에서는 본인의 저서인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



하는가'를 토대로 국회활동을 통해 이런 경험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또한, 이날 청원공감하마당에서는 특강에 이어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연맹장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 5만명 청소년의 도전과 꿈, 성취의 장"이라며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는 전라북도와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희망한 직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을 위한 동영상도 상영됐다. /송호철 기자

효천지구 입주민 교통편의 개선

전주시·LH, 삼천동 용리로 잇는 교량 설치... 내년 공사 착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전주시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교량연결 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효천지구와 삼천동 용리로 잇는 교량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비지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효천지구 삼천 횡단교량은 주변 도로의 여건과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해 길이 123m, 폭 43m, 왕복 6차로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 단순히 효천지구와 삼천동 완산소방서 방면을 연결하는 통행로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연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량 남측에는 9.5m폭의 광장형 보도를, 북측에는 5.5m폭의 보행로도 조성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삼천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곡선보도를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호철 기자

앞서, 효천지구 인근 주민 등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교통편 분산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기존 생활권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삼천 횡단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시와 LH전북분부는 주민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토지평가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교량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며, 지난해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교량 규모를 결정하고 지난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왔다.

김성문 시 신도시사업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천변 산책로와 연결된 보행동선 구축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천지구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삼천동 일원의 기존 생활권과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